

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

*누가, 언제 정했나요?

정식 명칭은 ‘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(World Book and Copyright Day)’로, 1995년에 유네스코에서 제정되었습니다.

*왜 4월 23일로 정했나요?

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축제일인 ‘세인트 조지의 날’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이 4월 23일이라는 점에서 유래되었습니다.

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[4/23~4/30]

도서관에서 깜짝 행사를 엽니다!

*연체자 해방

행사 기간 동안 연체도서를 반납하더라도 대출금지에서 해방됩니다!
(반납했는데 연체로 인한 대출금지로 되어있으면 5교시 후에 2-1로 오세요.)

*마음도 남남, 입도 남남

책을 읽으면 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, 대출하면 내 입도 풍요로워지고,
책 빌리는 사람에게 주전부리 1개 증정! (한 사람당 1일 1개로 제한합니다)
책 속에 추가 남남이 쿠폰도 있습니다. 쿠폰이 나온 책을 함께 가져오면 됩니다.
(쿠폰도 한 사람당 1일 1개로 제한합니다. 또한 읽지도 않으면서 쿠폰 찾겠다고
마구 책들을 헤집으면 행사기간 동안 도서관 출입정지입니다.)

*퀴즈퀴즈

‘세계 책의 날’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, 추첨함에 넣어주세요.
추첨을 통해 정답을 모두 맞힌 10명에게는 추후 맛있는 선물을 증정합니다.

*도전N행시

‘세계 책의 날’로 5행시 또는 ‘독도수호’로 4행시를 멋있게 지어주세요.
학년별로 가장 잘 지은 학생 1명에게 소소한 상품을 증정합니다.